

다녀왔습니다

我回来了

글 ODA Gada ◆ 그림 홍윤이

文 ODA Gada · 图 Hong Yuni



 광산구



 호남대학교
HONAM UNIVERSITY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글 ODA Gada 文 ODA Gada

광산구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ODA Gada의 협업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개인위생 보건교육에 이어 성인지 교육을 위해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由光山区教育支援科教育政策组和湖南大学护理专业学生组成的社团ODA Gada协作，继全世界所有人的个人卫生保健教育，为了性认知教育而编撰了这本书。

그림 **홍윤이** 图 Hong Yuni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HILLS(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웠다.
그림책 출판사 이야기꽃에서 오랜 시간 편집디자인을 해왔으며,
페인팅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在大学专修西洋画，
在HILLS(韩国插画学校)学习了插画。
长期在连环画出版社“故事花”设计部门
从事彩绘和插画工作。

다녀왔습니다

초판	2020년 3월 30일
기획	광산구·호남대학교
윤문	홍윤이
디자인	유니크스튜디오
영문번역 감수	한국번역통역재단
펴낸이	광산구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대표전화	062-960-8536(교육지원과)

我回来了

初版: 2020年3月27日
策划: 光山区·湖南大学
审稿: 洪允梨
设计: YUNIQUE STUDIO
英译及校对: 正在委托进行
发行人: 光山区
地址: 光州广域市光山区光山路29号街15
电话: 062-960-8536

다녀왔습니다

我回来了

글 ODA Gada ◆ 그림 **홍윤이**

文 ODA Gada / 图 洪允梨





지호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志浩是一名普通的中学生。



지민이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志敏是一名普通的女中学生。



지호는 교복을 입습니다.

志浩在穿校服。



지민이도 교복을 입습니다.

志敏也在穿校服。



지호는 아슬아슬 지각을 면했습니다.

志浩险些迟到。



지민이는 안타깝게도 조금 늦었네요.

志敏迟到了一点。



지호는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합니다.

志浩在课间休息时常常有些紧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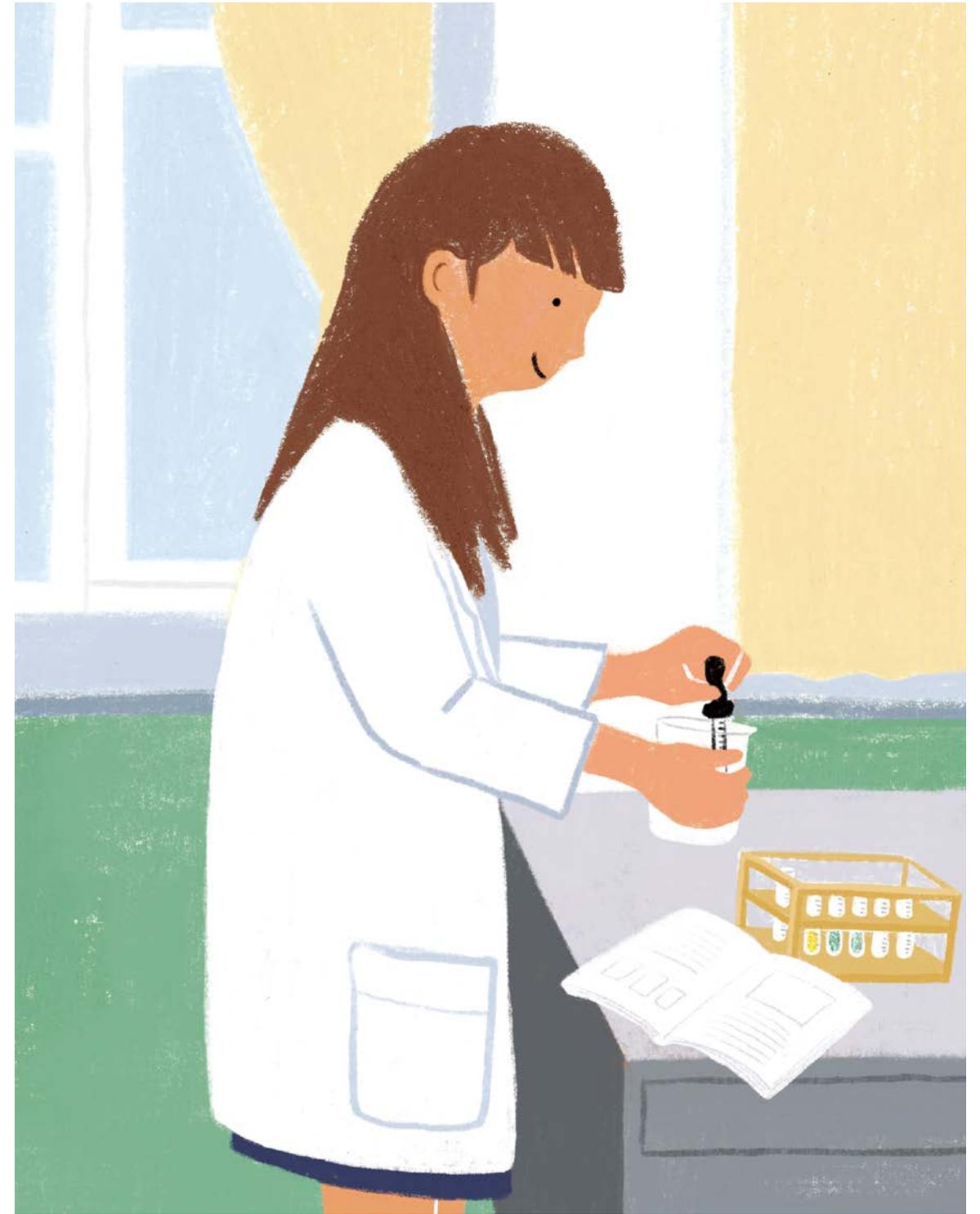
지민이도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합니다.

志敏也在课间休息时常常有些紧张。



지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志浩努力学习。



지민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志敏也很努力学习。



지호는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志浩在等午餐时间。



지민이도 점심시간을 기다렸지요.

志敏也在等午餐时间。



지호는 체육시간을 좋아합니다.

志浩喜欢体育课。



지민이도 체육시간을 좋아합니다.

志敏也喜欢体育课。



지호는 특별활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志浩还没定下来特殊活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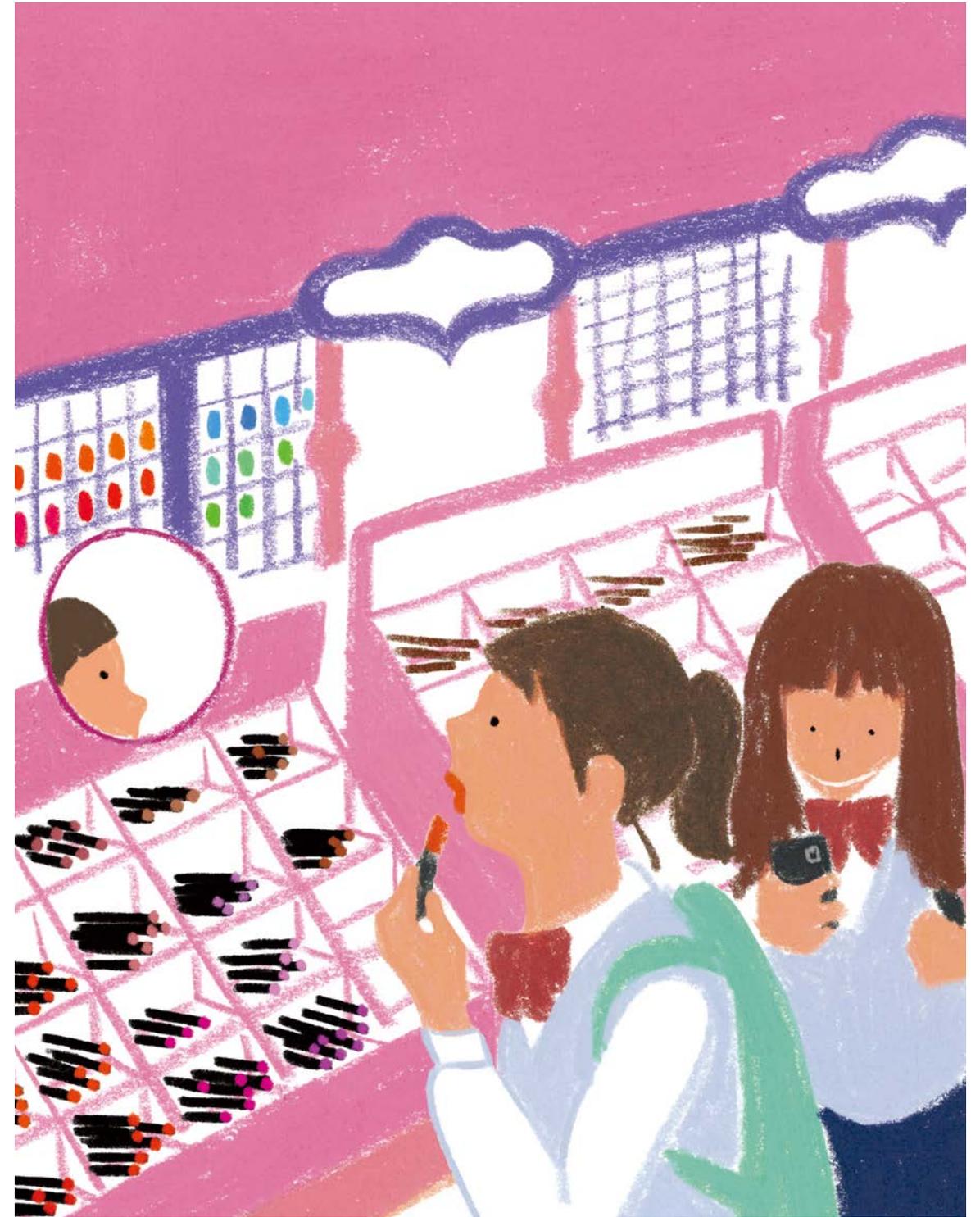
지민이도 특별활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志敏也还没定下来特殊活动。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志浩和朋友们一起度过时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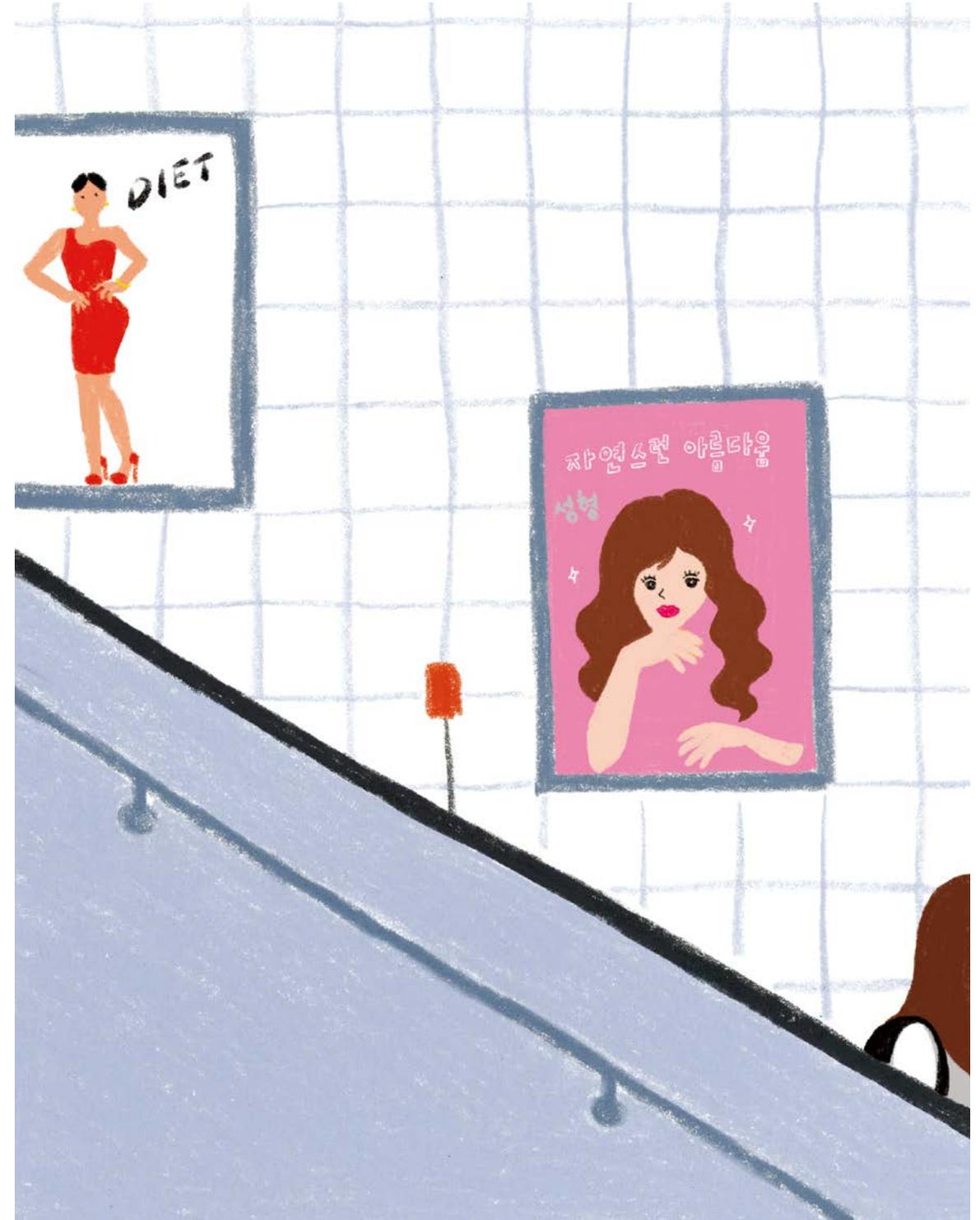
지민이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志敏也和朋友们一起度过时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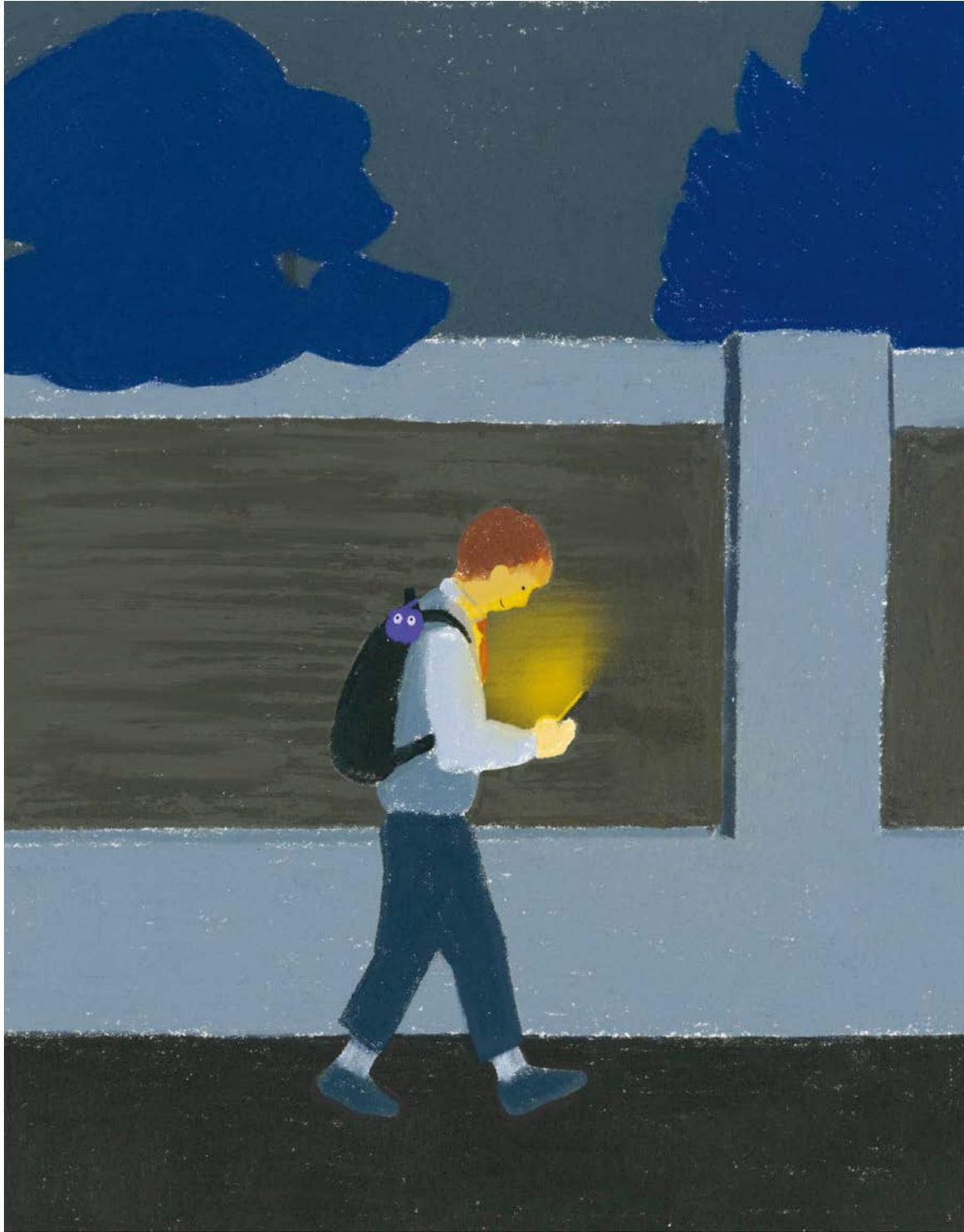
지호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향합니다.

志浩和朋友们分手后回家。



지민이도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합니다.

志敏也和朋友们分手后回家。



지호는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志浩在慢慢地走着。



지민이는 조금 서둘러 걷습니다.

志敏稍微加快了脚步。



"다녀왔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같이 오는구나!"

“我回来啦！”

“我们家双胞胎一起回来了呀！”

지민이와 지호는 저녁을 먹습니다.

志敏和志浩正在吃晚饭。





둘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俩人度过了同样的一天。

아마도요.

也许是这样。



기획의도

〈다녀왔습니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호남대가 공동 진행하는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 프로젝트’의 세 번째 그림책입니다. 청소년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사회의 공적영역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사적영역(가정 등)에서는 민감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의 주 독자가 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스토리 구성 단계부터 워크숍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큼니다.

“아직도 잘못된 성 고정 인식이 많은 거 같아요.”

“두루뭉술하지 않은 성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봐요!”

“성 소수자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로의 그림책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참여 청소년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책이 만들어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접하는 성 고정관념의 모습들을 담기로 했습니다. 집과 학교, 등하곳길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다녀왔습니다〉는 ‘숨은그림찾기’ 같은 책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고 외면했던, 숨겨진 차별과 억압의 모습들을 잘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독자들은 책에서 찾아본 내용을 꼼꼼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성장하길 바랍니다. 물론 사회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혹여나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누군가는 변했을 테니까요.

Production Intent

〈I'm back〉 is the third illustrated book in the ‘Rainbow Youth Global Citizen Project’ jointly published by Gwangsan-gu Office of Gwangju and Honam University. Youths need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become members of community that respect diversity. While sensitivity regarding gender awareness has recently evolved. Still, however, we are insensitive in many aspects. This book was made more meaningful as we listened directly to the stories of adolescents, the main audience of this book, and the contents were created with them from the composition stage through workshops.

“I think we still have misleading gender stereotypes.”

“Let’s make an illustrated book for sex education that is not ambiguous!”

“I want to make an illustrated book for the LGBT community.”

“How about making an illustrated book for victims of sexual abuse?”

The participating teenagers were a great help to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as they actively voiced their opinions. We decided to deal with gender stereotypes that teenagers experience in everyday life in this book. We depicted situations that take place at home, school, and on the way to school and home.

The book is like a ‘hidden picture puzzle.’ Try to find hidden cases of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at we overlooked and ignored in the past. We recommend young readers to spend some time to think about the situations they find in the book and discuss them with others for personal development. Naturally, society does not change readily or in the way you want. However, we hope you never become discharged because at least some people that read this book will change.

감수자의 한마디

사회 속 존재하는 젠더 규범을 표현함으로써, 성인지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회적, 구조적, 인지적 차별의 고정적 시선과 현실적인 문제가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행동과 글에 잘 드러나 있다. ‘만약에 나라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노미숙(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

전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어, 독자가 당연하게 봐왔던 것에 대해 낯설게 느끼고 다른 성 역할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서정우(광산구 여성아동과, 젠더 정책 전문가)

이 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남자 여자의 편견을 깨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건 여자가 좋아하겠네, 저런 건 남자가 좋아하겠네! 같은 편견을 깨 버리라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중2 남자

남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억압을 표현하는 등 책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단기원터 이용 청소년

성별 고정관념을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현실과 동등하게 표현해 공감력이 높은 그림책이다. 같은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거울을 보는듯한 느낌으로 교육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에서도 평가하는 주체, 평가당하는 대상으로 나누어서 묘사한 점이 흥미로웠다.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에 대한 기대치와 고정관념 같은 걸 간접적으로 잘 표현했다.

김진숙(미국 텍사스 대학, 여성학 전공)

콘텐츠에 성별고정관념과 가족, 청소년에 대한 주류 중심의 표현이 다양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을 통하여 성별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성차별적 상황을 살펴보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임(광산구의원)



참여자(그림책 프로젝트 참여 학생)

이승희, 김정현, 송현지, 박나연, 최지은, 윤민지,
조혜주, 이지은, 박유경, 이찬미, 송하늘, 이지원,
정유진, 노다은, 민혜영, 이시윤, 조혜성, 신민주,
정민주, 김서영, 양혜지, 정영은, 봉미송

공동기획

광산구 교육지원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장윤경 교수)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신혜연 센터장)
한국그림책문화협회(노미숙 대표)

성인지 분야 감수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장)
서정우(광산구 여성아동과)
조영임(광산구 의원)
김은영(여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진숙(텍사스 대학교 미디어학과 강사)

도움주신 분

예지책방, 나비효과(성문화동아리),
김우영(㈜3D테크놀로지)

이 책의 공동저작권은

광산구, 호남대학교 장윤경 교수 외 학생 23명,
홍윤이, 유니크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참与人 (参与连环画制作的学生)

Lee Seunghee, Kim Jeonghyun, Song Hyeonji, Park Nayeon,
Choi Jiyeun, Yoon Minji, Cho Hyeju, Lee Jieun,
Park Yougyeong, Lee Chanmi, Song Haneul, Lee Jiwon,
Jeong Yujin, No Daeun, Min Hyeyoung, Lee Siyun,
Cho Hyesung, Shin Minju, Jeong Minjoo, Kim Seoyoung,
Yang Hyeji, Jeong Youngeun, Bong Misong

共同策划

光山区教育支援科
湖南大学护理专业(Jang Younkyoung 教授)
光山区青少年性文化中心(Sin Hyeeyeon 中心主任)
韩国连环画文化协会(No Misuk 代表)

性认知领域审阅

Kim Jihak(韩国多样性研究所所长)
Seo Jeongwoo(光山区女性儿童科)
Jo Yeongim(光山区议员)
Kim Eunyong(丽水市立青少年性文化中心主任)
Kim Jinsook(德克萨斯州大学媒体专业讲师)

赞助人

睿智书屋、蝴蝶效应、Kim Wooyoung(株) 3D技术)

**这本书的共同版权 归光山区、湖南大学 张允敬 教授及23名
学生、洪允梨、YUNIQUE STUDIO所有。**



지민이와 지호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보낸 하루는 서로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Ji-min and Ji-ho have an ordinary day.
They attend classes, get along with friends...
However, their day doesn't seem the same.
Is it okay in this way?